

■ 박상건 호남대학교 제4대 이사장 취임식

“인재 양성 최선...지역사회가 신뢰하는 동반자 될 것”

현 씨아이하우징·에스시아이 회장·한국대학법인협회 이사
“합리적·실용적 학교 운영...구성원 존중하고 배려하겠다”

학교법인 성인학원 호남대학교 박상건 제4대 이사장이 10일 취임했다. 박 이사장은 이날 오전 11시 교내 문화체육관에서 전체 교직원과 학생대표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대학의 미래가 지역의 생존과 직결돼 있는 만큼,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최선을 노력할 것을 기원하며 지역사회가 신뢰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지역대학 역할론’을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또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 급변하는 교육환경 등의 위기에 직면

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진단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대담하게 도전해서 두려움과 패배주의를 불식시키고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교직원들의 비상한 각오를 당부했다. 이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대학 운영, 구성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도 발취해 나가겠다”면서 “호남대 가족 여러분과 함께 지혜와 열정을 발휘해서 도약을 이뤄나가겠다”며 강조했다.

박상철 총장도 축사를 통해 “우리 대학의 역사와 현실을 꿰뚫고 계시는 이사장

님의 리더십, 풍부한 경험과 통찰은 지역 사회 발전을 선도하고 시대를 앞서는 혁신의 주역으로 이끄는 든든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이사장님의 취임을 구심점 삼아 대학 구성원들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한마음이 돼서 ‘학생이 행복한 대학’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이사장은 고 박기인 설립자와 고 이화성 박사의 차남으로 광주 송원고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현재 ㈜씨아이하우징 회장과 ㈜에스시아이 회장,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이사를 맡고 있다. 2016년 3월부터 학교법인 성인학원 호남대 이사직을, 지난해 5월부터 이사장 직무대행직을, 11월19일부터 제4대 이사장직을 맡아 왔다.

김인수 기자 joinsu@gwangnam.co.kr



학교법인 성인학원 호남대학교 박상건 제4대 이사장이 10일 취임했다.

이재태 전남도의원, 설 앞두고 아동복지시설 위문

나주 금성원 찾아 위문품 전달·종사자 격려

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10일 설을 앞두고 나주시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금성원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위문은 명절을 맞아 보내 사회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로와 사랑을 전달함으로써 온정 가득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의원은 제철 과일을 전달하고 아이들의 생활 여건과 시설 운영 상황을 살폈다. 또 시설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1952년에 설립된 금성원은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상처 받은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양육 및 교육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이재태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명절 기간에도 아이들이 정서적 소외를 느끼지 않도록 더 따뜻한 관심과 돌봄을 당부드립니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재태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10일 설을 앞두고 나주시 소재 아동복지시설인 금성원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광주교통공사, 설 맞이 나눔 보따리 배달 ‘훈훈’

광주교통공사(사장 문석환)가 설 명절을 앞두고 노사 공동으로 지역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온기 나눔에 나섰다. 광주교통공사 문석환 사장과 김형일 노동조합위원장,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 우승구 부행장은 10일 광주시의회 심철의 의원, 임미란 의원과 함께 광산구 용진육아원과 남구자원봉사센터를 찾아 총 500만원의 위문품을 전달하며 이웃들의 따뜻한 명절 맛을 기원했다.

이번 위문품 행사는 공사 경영진과 노동조합을 비롯해 하나은행, 지역구 시의원들이 함께 참여한 민·관·공 협력 사회 공헌 활동으로 기획됐다. 공사는 설 명절



광주교통공사는 10일 설을 앞두고 광산구 용진육아원과 남구자원봉사센터를 찾아 총 500만원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을 앞두고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기 위해 매년 이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문석환 공사 사장은 “설 명절을 맞아 임직원 모두의 정성을 모아 다양한 이웃사랑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며 “광주시민 모두 소외되는 분 없이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 지산2동, 취약계층 고립감 해소 앞장

광주 동구 지산2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돌봄 이웃을 위한 ‘설맞이 이웃사랑 위문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돌봄 이웃, 취약계층이 보다 따뜻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마련됐다.

지산2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산2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는 명절 음식 재료인 떡국떡을 준비해 200가구에 가구당 3.6kg씩 전달했다. 특히 지산2동 자사협 위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가구를 직접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명절



광주 동구 지산2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돌봄 이웃을 위한 ‘설맞이 이웃사랑 위문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고립감 해소에 힘썼다. 신영순 지산2동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떡국 한 그릇 드시며 풍요롭고 건강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지산2동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한돈협회 구례지부, 지역사회 공헌 나눔 실천

600만원 상당 돼지고기 소외계층에 전달

대한한돈협회 구례군지부는 설 명절을 맞아 최근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60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546kg·2730인분)를 구례군에 기탁했다.

대한한돈협회 구례군지부는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마다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기탁된 돼지고기는 사회 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에 전달하게 된다.

이원열 구례군지부장은 “설 명절을 맞



대한한돈협회 구례군지부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 달라며 600만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구례군에 기탁했다.

아 지역 이웃들이 따뜻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kkgjin@

게시판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월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여,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통 등 진행. 062-223-1357. ▲사람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정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 지원 062-369-4009. ▲이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손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뜬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시니어클럽복지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부 문의 010-5522-9700. ▲사회공헌활동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 신창=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창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운세 (음력 12월 24일)

48년생 곤욕을 당하니 조언을 받아 들어라
60년생 부동산 매매운이 좋다
72년생 행운이 있는 날이지만 남자 조심하라
84년생 만나는 사람마다 유리하게 된다
96년생 무리하지 말고 순리대로 하라
51년생 공허로운 재물을 탐내지 마십시오
63년생 새 일을 시작할 때 약속 나오기 쉽다
75년생 제3자로 인한 이득 전출이 있다
87년생 그일은 여자 때문이 아니다
99년생 모순에 빠지지 말자
54년생 아랫사람들로부터 오해 받을 수 있다
66년생 가족과의 마찰을 조심하라
78년생 구설수가 따르고 뒷사람과 다툼 조심
90년생 이상행위를 못 만났으면 오늘 도전하라
57년생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된다
69년생 처음 판단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81년생 지출이 생길수 있으니 자제하라
93년생 부모님 말을 따르면 좋은 일이 생긴다

49년생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니 심판하라
61년생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판단하라
73년생 안전성 확보된 일에만 손을 대라
85년생 문서를 주고 받을 좋은 운
97년생 이성에게 미련을 갖지 말 것
52년생 자녀일 대범하게 대처하면 낭패 면한다
64년생 이제는 더 이상 전진이 없다
76년생 고통스럽겠지만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88년생 느긋하게 기다리면 귀인이 묘수를 준다
55년생 임시적인 미봉책은 화를 부른다
67년생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하겠다
79년생 두 번 생각해서 언행하라
91년생 이성에게 행동 조심해라
58년생 감당하기 힘들다면 부담할 이유가 없다
70년생 명예 훼손을 당할 운
82년생 고비를 잘 넘기면 좋은 결과 있었다
94년생 힘이 들더라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50년생 운수가 불리하니 만사 주의하라
62년생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성립되기 어렵다
74년생 자연스러운 것이 제일 좋은 법이라
86년생 노력에 비해 생기는 게 적다
98년생 지금은 때가 아니니 물러서라
53년생 우려했던 사건이 실제로 터지겠다
65년생 일을 그러치니 너무 서두르지 말라
77년생 친구·동료의 도움을 적극 수용하라
89년생 길한 징조가 가까이에 다가오고 있다
56년생 금전 손해보게 되니 앞서 가지말라
68년생 경험과 직감이 성공의 길로 인도한다
80년생 약속 한일 그것은 깨질 가능성이 높다
92년생 작은 일에 휘말려 중대한 일을 놓친다
59년생 배우자 외의 이성은 반드시 후회한다
71년생 함께하는 이와와 호흡이 중요한 때
83년생 무조건 참고, 하던 일이 영길 수 있다
95년생 희망한 기운이 계속되는 운